

광산구, 지역 대표 선진 교육도시로 거듭난다

미래교육지구·교육국제특구 선정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목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심도시로 도약

광주 광산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미래교육지구에 이어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진 교육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 7월 신규(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에서 처음이며, 호남에선 여수에 이어 두 번째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세계적 전문 인력 양성, 국가경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교육부가 지정한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는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문화 자원, 전국 자치구 최초 외국인 주민 전담 부서 신설, 풍부한 국제 교육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교육국제화특구의 최적지로 평가됐다.

광산구는 그동안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 등 세 가지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기반을 다져왔다.

광산구의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은 지난해 12월 미래교육지구 선정에 이은 쾌거다. 광산구와

광주시,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지역 대학, 학교, 교육단체 등 폭넓은 민·관·학 협치 기반과 역량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미래교육지구와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양 날개를 달게 된 광산구는 광주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주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4월 광산교육협력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광산은 어디나 배움터'라는 비전 아래 광산교육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행정과 자치행정이 협력해 마을과 학교를 잇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광산구는 또 교육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광산지역교육실무협의체,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교육이슈 공론장 '이음톡톡'을 매월 진행 중이다.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마을교육 변화, 안전한 학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음톡톡' 등은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성덕중, 진흥중, 월계중 등 3개교 510여 명이 참여한 우리마을 문제해결사 체인지메이커 과정, 호남대와 함께 만든 광산구 미래기술학교(AI로봇 등 6개 프로그램)도 10개 고교 80여 명의 학생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학교 이문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 속 녹색 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생태전환교육도 인기가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에



지난 4월 광산구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아호센터'에서 열린 광산교육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는 지역 교원, 기후강사, 마을교육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9월에는 청소년 대상 에너지 여행과, 풍력발전 등의 가치를 배우는 생물관양성 여행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총회와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콘텐츠 제작 등 상생·혁신의 마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교육국제화특구도 광주시, 광주시교육청과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특구 지정으로 광산구는 2027년까지 다문화 이해, 세계 시민교육, 외국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 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세워, 조만간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마을과 학교, 지역을 엮는 상생·혁신의 교육생태계를 구현할 미래교육지구와 더불어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으로 광산구가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됐다"며 "유기적 민·관·학 협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광산을 넘어 광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혁신교육의 모델을 성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도산동 사회단체 회원들 돌봄 이웃 주거환경개선



광주 광산구 도산동 사회단체 회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 의식 가구를 발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주거환경 대상자인 80대 A씨는 돌봐줄 가족 없는 중장년 1인 가구로, 그동안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 안을 정리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도산동 사회단체 회원 11명은 지난 4일 폭폭지는 폭염 속에서도 빛고을 한사랑 자원봉사단체 회원과 함께 A씨 집에 가득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 대청소를 하고, 도배·장판을 정비했다.

A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일처럼 한달음에 달려와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소셜아이어워드 대상 블로그 분야...2년 연속 수상

광주 광산구는 "혁신적인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선별하는 '2023 소셜아이어워드(i-AWARD)' 블로그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디어 플랫폼 등 분야별로 혁신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평가하는 소셜미디어, 인터넷 분야 시상식이다.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전문가 평가위원단 3800여 명과 최고평가위원 등이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비주얼, 브랜드 등 5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공공기관) 블로그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2년 연속 대상은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광산구는 참신하고 독특한 콘텐츠로 블로그를 흥미와 실속을 다잡은 시민 소통창구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 경제, 안전 등 유용한 정보, 최신 경향에 맞춘 다양한 소식을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소셜지간, 크리에이터 등 시민 참여로 지역의 숨은 매력을 드러낸 콘텐츠를 발굴한 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병규 구청장 "지속가능 광산, 사회적 합의로 완성"

유럽 탐방 결과 공직자와 공유 세계 스마트 도시재생 벤치마킹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7일 월요 모뎀회의를 통해 최근 유럽 방문 결과를 전 공직자와 공유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대부분 혁신사례의 공통점이 사회적 합의"라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의 선진 사례는 지역사회 전체가 사회적 대화를 벌인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유럽 선진 정책사례를 구정의 미래 청사진에 접목하고자 강기정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대표단과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유럽 4개국 6개 도시를 돌며 도시재생, 탄소중립, 자전거 활성화, 외국인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성공사례를 직접 살피고, "지속가능 광산"을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세계적 친환경 '스마트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 쇠퇴기를 극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도시'로 우뚝 선 스웨덴 말뫼 '쉬퀼후세트', 친환경 자원순환에 문화를 접목한 발상의 전환으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과 지방정부 경제개발기관인 바르셀로나 약티바본부를 방문, 파우 솔라니크(Paul solaniik) 바르셀로나시청 국제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22@플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로 시민의 큰 환영을 받은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특히 바르셀로나 '22@혁신지구'는 모든 거리에서 1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간중심 도시'를 지향, 쇠퇴한 공업지구를 지식기반 산업과 교육기관, 주거 등 복합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혁신지구로 탈바꿈한 사례로, 광산구가 추진하

는 도시재생 사업 및 앞으로 본격화될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 구청장은 "세계적 혁신 성공사례의 공통점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됐다는 것"이라며 "끊임 없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광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립준비청년에 후원금 전달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자립준비청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30만 원을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사진>

후원금은 신가동 자립준비청년 등 5명에게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나눔친구'로 참여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신가동 지사협은 사랑의 반찬 나눔 및 세탁 봉사 등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해 오고 있다.

박영환 신가동 지사협 위원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속해서 온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